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김동환 (연세대학교, 부교수)

I. 들어가는 말

I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

II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과 기독교의 사상적 접목

1. 정의로운 나눔의 기독교적 경제윤리와 기본소득
2. 기독교의 인간이해와 기본소득
3. 기독교의 인간 평등사상과 기본소득
4. 기독교의 관계성과 기본소득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02>

* 본 논문은 2019년 4월 27일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 ABSTRACT •

A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upon Basic Income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im, Dong Hwan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The issue of basic income, which has been recently focused, is not only discussed within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but also needs to be discussed more macroscopically and more prospectively by predicting the futur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impacted by cutting-edge technologies. With this concern, this article regards modern society, which is put in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neoliberal society conspiring wit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suggests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the polarization of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loss of current jobs. For this, this article seeks to support the necessity and legitimacy of basic income by selecting the four positions of Christianity which are in line with the main position of basic income and linking them with basic income.

Key words: Basic Income, Christianit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Economic Ethics, Neoliberalism

I. 들어가는 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지만,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에 생겨났다. 16세기 토마스 모어(Thomas More)는 그의 명저 『유토피아』에서 사회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모든 시민이 “무상으로,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체제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기본소득 개념의 기초를 닦았다.¹⁾ 이후 개념적 제시의 차원을 넘어서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러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매우 활발해졌다.²⁾ 21세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근대에 활발해진 계기는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전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 프랑(약 28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고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되었던 일이었다.³⁾

현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1986년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가 설립되면서 구체화되었으며, 2004년에 유럽에서 전 지구로 범위를 확장하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
- 1) 양재진,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제25권 1호 (2018), 50. 부결된 이유는 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해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기존 복지 대상자들이 받던 혜택을 기본소득이 대체하지 못하여 오히려 기존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생활수준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기본소득 혜택자의 범주에 현저 주민이 아닌 난민 또는 이주민까지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결국 이들에 대한 배척이 심해지고 국가 간 장벽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이다(『스위스 국민들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 거부한 이유는?』 『한국일보』 2016년 6월 6일자).
 - 2)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본소득에 대한 역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책자와 논문 거의 모두의 서문부에 설명되어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과감히 생략한다.
 - 3) Hans Ruh,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정미현 역,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8), 5(각주3) 역주 참조.

Earth Network)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활성화되었다.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⁴⁾ 이에 따라 간단히 주요 개념만 설명하자면,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자산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시민)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으로서 “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household)가 아닌 개인(individual)에게 지급, 둘째, 소득 및 자산 수준,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무조건적(unconditional) 지급, 셋째,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주기적(Periodic) 지급, 넷째, 서비스나 물품 같은 현물(in-kind)이나 특정 상품과 서비스 구매만 가능한 바우처가 아닌 현금 급여(cash payment)로 지급, 다섯째, 자산조사(means test)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universal) 지급”⁵⁾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내용이 기독교 신학계에 소개된 것은 무척 최근의 일이다. 국내 신학계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논의이기에 경제윤리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신학적으로 가장 많이 다룬 분야는 기독교윤리학이다. 국내 기독교윤리학 분야에서 기본소득에 대하여 다룬 학술 연구로는 강원돈의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신학사상』 150 (2010)), 박호철의 “신자유주의의 기독교적 한 대안: 수정된 기본소득제도”(『신학논단』 83 (2016)), 김성호의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실천방안 연구”(『기독교 사회윤리』 38 (2017)), 오단리와 서봉균의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와 적용”(『기독교사회윤리』 40(2018)), 정미현의 “노

4) 2009년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도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내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고 있다.

5) 양재진,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48-49.

동의 재분배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하여”(『기독교사회윤리』 42 (2018)) 등이 있다.

아직 한국 신학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기에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나 현황을 국내 신학계에 소개하는 것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로 어떠한 특정 신학적 혹은 사회적 주제와의 연관 속에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신학계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터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소개나 특정 주제와의 연결을 넘어서서 보다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의미와 의의를 분석하고 기독교 윤리적 비평으로까지 발전시킨 연구로는 위의 강원돈의 논문이 돋보인다. 본 연구는 이처럼 거시적인 차원의 시도를 더욱 진전시켜서 기본소득 논의의 장(場)을 현대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에서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첨단 과학기술문명의 상황으로까지 확대시켜 보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이자 기본 관점으로 삼는다.

I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21세기 첨단 과학기술문명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현재와 미래의 첨단 테크놀로지의 흐름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전 사회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 중 하나는 테크놀로지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가는 테크놀로지는 이 시대를 ‘테크놀로지의 시대’라 명명하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제시될 때,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가 거론되는 것은 이를 명백히 뒷받침해준다.

21세기 첨단 테크놀로지의 독특한 특성은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지대한 사회적 영향력이다. 이전 세기의 테크놀로지들과는 달리 21세기의 테크놀로지들은 과학이라는 분야의 범주를 넘어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사회 영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과학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으며 서로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은 굳이 이에 대한 부가 설명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이러한 투자 유치의 소용돌이는 비단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정치적, 법적, 군사적, 문화적, 생활적인 모든 측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의 삶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첨단 테크놀로지가 현대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정치경제 흐름에 속도를 더해주는 모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적 양극화나 직업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증가 및 사회적 불평등 양상의 심화는 첨단 테크놀로지의 지원으로 현대 신자유주의가 이룩해내고 있는 불안하고도 치명적인 업적이다.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업적이 계속 달성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전 인류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국제 사회적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하고도 실천 가능한 범지구적 논의들 중 하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이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한마디로 ‘일정 소득의 균등한 분배’이다. 즉 사회적 지위나 계층, 재산이나 수입의 많고 적음, 노동의 여부나 노동 의사

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이 실제로 사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균등한 소득 분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이자 각성’이다. 전 사회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깨닫게 되어야만 기본소득은 의식 있는 소수에 의한 논의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대중적 이슈로 논의되고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제도적, 법적 제안 이전에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며 정당한지에 대한 이유를 뒷받침해줄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기본소득 논의의 근본적이고도 최우선인 과제이다.

II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과 기독교의 사상적 접목

일정한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제안하는 기본소득의 논의는 기독교가 오래도록 제시해온 몇 가지 핵심적인 사상들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는 기독교의 사상들을 찾아내어 서로 접목시키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과 의도에서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과 연결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기독교의 사상들을 선별하여 기본소득과 접목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의로운 나눔의 기독교적 경제윤리와 기본소득

소득의 정의로운 나눔을 지향하는 기독교의 경제윤리는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제안하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소득의 분배와 연관시켜 볼 때, 기독교적 경제윤리는 생산보다는 소비에, 소득보다는 분배에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둔다. 즉 어떻게 벌었는가보다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⁶⁾ 예를 들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눅 16:9)는 예수의 가르침은 재물을 모은 동기와 과정이 설령 의롭지 못하더라도 친구를 사귀는 선한 행위를 위해서라면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선을 실천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또한 억눌린 동족을 등지고 식민지 지배국가인 로마제국을 위하여 과세를 징수하는 세리장으로 불의하게 모아온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삭개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는 예수의 획기적인 반응(눅 19장)도 이를 대변해준다. 이처럼 소득의 정의로운 나눔에 지극한 관심을 보이는 기독교적 경제윤리관은 소득 창출의 원인과 과정이 아니라 이미 얻어진 소득의 균등한 분배에 주된 초점을 두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상통한다.

반면 현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흐름은 소비보다는 생산에, 즉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에 집중한다. 최대 생산과 최대 이윤창출을 향한 무한경쟁의 구도 속에서 벌어들인 재물을 어떻게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를 논할 여유는 없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현대 과학기술이 이러한 양상을 부추기는 엄청난 이유이자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틱스와 같은 최신 테크놀로지의 개발을 향한 국제적 차원의 경쟁 구도 속에서 생산과 이윤창출에만 눈먼 신자유주의는 현대 과학기술로부터 엄청난

6) 이 말이 행여나 어떻게 벌었는가에 대해 기독교가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성실하게 수고하여 재물을 얻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성서(특히 구약성서)의 기본 맥락이다. 개신교의 경제윤리에 관한 독보적 고전으로 자리 잡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막스 베버(Max Weber)가 금욕적 신앙을 따라 성실하게 재물을 벌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신의 뜻으로 여김으로써 근대 유럽 개신교인들이 부를 축척하게 되었다고 분석한 근거(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서울: 문예출판사, 1995), 126)도 이러한 성서적 맥락과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신약성서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은 확실히 어떻게 벌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훨씬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에 지대한 관심을 쏟은 예수의 기본적인 배품과 섬김의 삶과 윤리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합리화시킨다.

일찍이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테크놀로지에 관한 철학적 이해의 현대 고전으로 여겨지는 *The Technological Society*에서 테크놀로지가 더 이상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단순한 기계임을 넘어서 전 인류 문명을 아우르고 있음을 분석하면서⁷⁾ 테크놀로지의 자율적 힘의 사회적 영향력과 그 양상을 규명하였다. 특히 그는 테크놀로지가 그 자신의 자율적 힘을 통해 스스로의 이데올로기 곧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를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밝혔다.⁸⁾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테크놀로지가 스스로 구축한 이데올로기인 테크노크라시뿐 아니라 현대에 영향력 있는 다른 이데올로기들과의 결탁을 통해 그 힘의 능력을 더욱 고양시켜 왔다는 사실이다.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테크놀로지가 자신의 힘을 고양시키기 위해 가장 결탁하기를 원해온 현대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엘룰이 활동하던 20세기 중후반에는 세계를 휩쓸던 냉전체제가 지나가던 시대였기에 이 시대의 테크놀로지가 우선적으로 결탁하기를 원했던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이었다. 그렇다면 냉전시대가 끝나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테크놀로지가 가장 주목하는 결탁의 대상은 무엇인가? 어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가에 상관없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세상 모든 국가들에 침투하고 있는 21세기 국제 정세로 미루어 짐작해볼 때, 현재 테크놀로지가 최우선적으로 결탁하고자하는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엘룰이 활동하

7) Jacques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John Wilkinson, trans. (New York: Vintage Books, 1964), 128.

8) Dong Hwan Kim, "A Theological Discourse on the Relation of Technology and Love," 『기독교사회윤리』 제28집 (2014), 87.

9) 김동환, "테크놀로지 시대의 인간에 대한 신학적 비평," 『Canon&Culture』 제10권 2호 (2016), 93.

던 20세기에도, 작금의 21세기에도 꾸준히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들과 협력하면서 세계를 장악해나갔고, 소위 “자본의 세계화”를 이룩하였다.¹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운영되는 현대 자본주의와 과학기술문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현대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은 결국 21세기를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명명하게끔 만든 근본적이고도 가장 현실적인 동인(動人)이었다. 이렇게 볼 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논의에 있어서 두 축을 이루는 분야가 경제학과 과학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두 세기에 걸쳐 세상을 아우르게 된 이 두 분야 곧 경제학과 과학(실상은 자본주의와 테크놀로지)의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결합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혁명의 주요 기술들로 언급된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 컴퓨팅”¹¹⁾ 등은 수년 사이에 세계 경제 산업의 판도를 계속해서 뒤집고 있다. 특별히 그 중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건 국제적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된 지 1년 만에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국가가 향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발언했으며,¹²⁾ 다시 1년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미국 백악관에서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보잉 등 40여 개 기업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은행

10) 자본의 세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François Chesnais, *La mondialisation du capital*, 서익진 역, 『자본의 세계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참조.

11)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바브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현재, 2016), 10.

12) ‘푸틴 러시아 대통령 “AI 선도하는 국가, 미래의 통치자 될 것.” 『조선일보』 2017년 9월 5일자.

및 대학과 연구소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미 정부가 AI산업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기술 리더십을 중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방하면서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¹³⁾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사안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 산업을 논의하는 현재의 흐름은 그동안 국가의 경제 산업을 돕고 그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오던 과학기술이 이제는 국가의 경제 산업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경쟁 구도 속에서 정의로운 소득의 나눔을 지향하는 기독교의 입장과 균등한 소득의 분배를 지향하는 기본소득의 제안은 설득력을 잃는다. 분배는커녕 소비 이전에 생산에만 집중하면서 국가 단위로 자국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줄 수 있는 최첨단 생산품들의 개발과 판매에 온 국가 경제 발전의 힘을 쏟는 소위 ‘테크놀로지의 신자유주의’(technological neoliberalism)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생산과 판매로 인한 소득(이윤창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재투자가 아닌 이상 그 소득을 어떻게 정의롭게, 균등하게, 올바르게 사용할지에 대한 경제윤리적 논의가 들어갈 틈도 여유도 없다. 더욱이 인간이 만든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엘릴의 분석이 예언이라도 되었듯,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서 스스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되기에,¹⁴⁾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첨단 테크놀로지와 자본주의와의 결합이 생산과 소득(이윤창출)에 급급한 현재 경제 산업의 구조와 흐름을 더욱 강

13) “AI 드림팀” 꾸린 美, 13억명 빅데이터 가진 中 ... “미래”를 건 싸움; 『한국경제』 2018년 5월 16일자.

14) 실제로 이러한 예측의 현실 가능성을 우려하여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The Independent* 지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이미 2014년 봄에 이렇게 밝혔다: “인공지능의 영향력은 단기적으로는 누가 통제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인공지능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58에서 재인용).

력하게 이끌어갈 것임은 자명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세계 경제 시장의 흐름과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기독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생산보다는 소비에, 재투자보다는 분배에, 낭비보다는 나눔에 우선적인 관심을 오래토록 가져온 기독교의 정의로운 경제윤리관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가 이러한 흐름을 관망하며 냇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소득의 나눔에 초점을 두면서 기독교가 오래토록 말해오고 실천해온 경제활동의 일차적 모습은 ‘자선(혹은 구제)’이다. 이웃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은 성서 전체를 흐르는 윤리적 덕목이며 기독교 경제윤리의 기본적인 실천 과제이다. 스티븐 롱(Stephen Long)에 의하면 “자선(charity)은 하나의 형식적인 원리가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이며 성령을 통한 관계를 일컫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그 관계에 참여하게 된다. 자선은 하나님의 삶(life of God)이며, 창조가 거하는 틀이다.”¹⁵⁾ 이렇게 볼 때 자선은 세상의 어떠한 선한 윤리적 개념이나 구조나 체제로 비유되거나 논의되거나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이요 관계요 그의 말씀으로부터 내려오는 본질적인 기독교 경제윤리의 전통이자 기본 원리이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소득을 나누는 자선의 원리가 실제 경제 활동에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된다.

이러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자선의 경제윤리는 첨단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현대 자본주의의 흐름에 대해 비평적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내야한다. 구체적으로, 생산과 판매와 소득(이윤창출)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국 자선

15) D. Stephen Long, *Divine Economy: Theology and the Marke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233.

과 같이 소득을 정의롭게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평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또한 자선을 통해 소득의 정의로운 나눔을 제시하는 기독교 경제윤리는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제시하는 기본소득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에 서로간의 연대를 통하여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 내야한다. 둘 사이의 연대를 통해 기독교 경제윤리는 소득의 정의로운 나눔의 정신을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사회 속에 실현시켜야하며, 기본소득의 제안은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추진해야 할 이유와 근거에 대한 개념적, 사상적 지원을 기독교 경제윤리의 전통으로부터 받음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구축해야 한다.

2. 기독교의 인간이해와 기본소득

인간의 고유성과 존귀성을 중요시하는 기독교의 인간 이해는 노동의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시민)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주장에 당위성을 부여해줄 수 있다. 최근 기본소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은 몇 년 사이에 대중적으로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직업군의 변화이다. 4차 산업혁명이 처음 거론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었던 것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소멸할 인간 직업군들의 예측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의 변화는 각 개인들의 직업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고용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결국 전 사회에 걸친 소득과 분배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변화의 예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내용은 뛰어난 지능과 능력을 겸비한 로봇(주로 AI로봇)으로 인한 인간 노동 시장의 잠식이다. 사실 예전부터 논의되어오던 기본소득이 최근 들어 매우 부각된 가장 큰 이유는 로봇의 인간 노동 시장의 장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이 밝혔듯이

“맞건 틀리건 (혹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건) 최근에 기본소득이 화제가 된 주된 이유는, 머지않아 실리콘혁명·자동화·로봇공학이 대량의 ‘기술적 실업’을 가져올 정도로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견해 때문이다.”¹⁶⁾

경제윤리적 차원에서 볼 때 여기서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사항은 그러한 직업과 노동 시장의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 즉 누가 소득을 얻고 누가 분배를 하는가이다. 최근 이루어지는 미래 예측 연구들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첨단 테크놀로지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업이나 국가가 앞으로의 소득과 분배의 주체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팀에 의한 ‘미래사회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게 될 2090년경에 전 세계는 인공지능 권력이 계급을 나누는 이른바 ‘초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0.001%의 IT공룡기업에 의해 일반시민들 대부분이 소위 프레카리아트¹⁷⁾로 전락할 것임을 예측했다(그림 1 참조).¹⁸⁾

그렇다면 “누가 프레카리아트에 진입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스탠딩은 “사실상 누구든”이라고 대답한다. 계속해서 그는,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의존하게 된 보장이라는 장신구를 금융충격이 없애 버린다면, 프레카리아트로 떨어지는 일이 우리 대다수에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¹⁹⁾이라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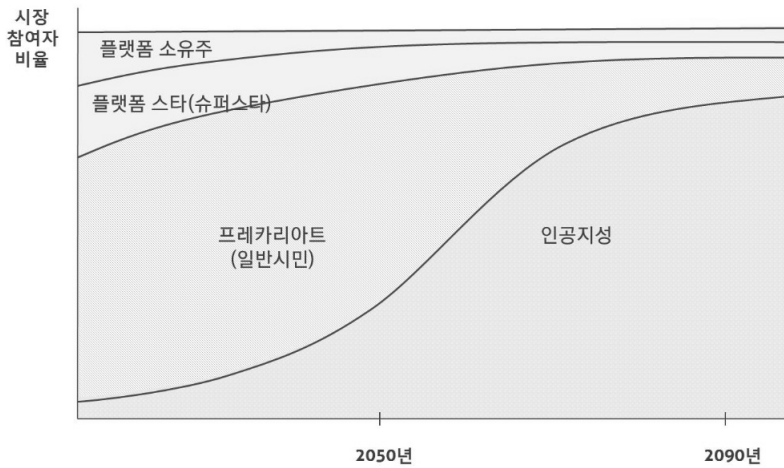
16) Guy Standing,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안효상 역,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주: 창비, 2018), 130.

17) 이 용어를 만들어낸 스탠딩에 의하면,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불확실하다는 뜻의 ‘precarious’라는 형용사와 그 어근이 되는 ‘proletariat’라는 명사를 조합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Guy Standing, *The New Dangerous Class*, 김태호 역,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고양: 박종철출판사, 2014), 23.)

18) ‘AI권력이 “초양극화사회” 만든다,’ 『매일경제』 2017년 10월 23일자.

19) Guy Standing, *The New Dangerous Class*, 127.

고 말한다. 그의 설명을 첨단 테크놀로지를 힘입은 신자유주의 사회에 적용시켜보면, “뜻밖의 일들”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이슈가 된 인공지능을 갖춘 AI로봇들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AI로봇들의 대거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인간 노동시장은 대부분 잠식당할 것이고, 놀라운 노동력을 지닌 AI로봇들이 산업 현장에 끊임없이 투입됨으로써 노동의 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어버린 대부분의 인간 시민들은 결국 ‘테크놀로지의 프레카리아트’(technological precariat)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림 2)

[그림 2]²⁰⁾에서 보이듯이 앞으로 21세기 중후반에 등장하게 될 테크놀로지의 프레카리아트는 21세기 초에 논의되고 있는 현재 프레카리아트의 상황보다 더욱 소외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우선 프레카리아트

20) 유기윤, 김정옥, 김지영, 『미래 사회 보고서』 (서울: 라온북, 2017), 17.

의 열악한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프레카리아트는 이제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조합된 어떤 형편에 직면하고 있다. 옛 프롤레타리아트나 샐러리아트와는 달리, 프레카리아트에게는 소득 보장을 제공하는 기업수당이 없으며, 기여금 기반 사회적 보호가 없다. 그리고 프레카리아트는 화폐임금에 의존해야 하지만, 그들의 화폐임금은 다른 집단의 화폐임금보다 더 낮고 더 가변적이고 더 예측할 수 없다. 프레카리아트가 더욱 방기되고, 미미해진 사회적 원조의 공동체 시스템에 좌우되게 되면서, 소득 불평등과 수당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²¹⁾

여기서 말하는 “이제까지 없었던 방식”은 위에서 말한 “뜻밖의 일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뜻밖의 일들”중 하나가 AI로봇의 등장이라면, “이제까지 없었던 방식”은 첨단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하는 소위 IT공룡기업²²⁾의 소유주들을 주축으로 한 극단적인 자본의 독점화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둘을 조합하여 다시 설명하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테크놀로지의 프레카리아트는 아래로는 “뜻밖의 일들” 중 하나인 새로운 AI로봇이라는 노동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소외당할 것이고,²³⁾ 위로부

21) Guy Standing, *The New Dangerous Class*, 99.

22) 현재 놀라운 속도로 몸집을 키우는 IT공룡기업의 대표적인 예로 구글(Google)을 들 수 있다. “구글의 강력한 정보 수집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 태블릿의 60%에 설치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연결성의 한 특징은 어느 순간이 되면 경쟁 시스템의 사용자와 제공자 양쪽 모두 정해진 표준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Roland Berg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김정희·조원영 역,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서울: 다산, 2017), 54). 첨단 테크놀로지가 더욱 발전될 수록 구글과 같은 IT공룡기업의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23) 물론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에 의해 잠식당해온 것은 오래된 사회 현상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전후로 하여 새롭게 발견되는 현상은 이전과는 달리 대다수 시민이 속해있는 중산층 전체를 기계가 잠식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최초의 자동화 물결이 블루

터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자본을 독점하게 될 극소수의 최상위층 인간들의 등장에 의해 더욱 외면당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예측들이 현실이 된다면 현재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은 분명 초양극화 현상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결국 테크놀로지의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거의 모든 세계 시민들을 위한 소득 분배의 안정화가 전 인류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국제적 목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심각해져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혹은 제도적 장치로서 기본소득이 설득력을 점차 얻게 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사회적 효과 때문이다. 우선 기본소득이 실현될 때 일차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사회적 효과는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하여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질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기본소득의 수혜자가 되어 최소한의 기본 생계는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차적인 효과는 기본소득의 제도적 추진 과정 속에서 극소수 최상위 소득자에게로만 집중되던 자본이 기본소득의 분배를 통해 사회로 일정부분이나마 지속적으로 환원될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회적 효과와 함께 미래의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를 예측해보자면, 기본소득이 특별히 테크놀로지의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미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 기본소득의 수혜자가 정확히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존재

칼라의 노동자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리엔지니어링의 혁명은 기업계의 중간층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집단인 중산 계급의 경제적 안정성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Jeremy Rifkin, *The End of Work*,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서울: 민음사, 1996), 231)고 분석한다. 21세기 직전 그의 시대에 새로웠던 리엔지니어링의 혁명과 앞으로 다가올 AI로봇의 혁명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인 과학기술 혁명임을 고려해볼 때 미래 중산층 곧 테크놀로지의 프레카리아트의 몰락의 심각성을 가히 짐작해볼 수 있다.

론적, 개념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시민(혹은 국민)이 ‘인간’이라는, 어찌 보면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적, 존재론적 사실의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과 기계와의 노동 방식의 차이가 분명하고 기계가 넘볼 수 없는 노동의 분야와 한계가 명확한 이전의 상황과는 달리 첨단 테크놀로지를 원동력으로 삼아 펼쳐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둘 사이의 노동 방식과 분야와 범위의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단순 노동의 분야만 장악하던 기계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이전에는 감히 넘보지 못하던 전문분야까지도 장악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⁴⁾ 이제는 좋은 싫든 간에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되었고, 현재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구도 속에서는 안타깝게도 둘 사이의 협업의 공생보다는 둘 사이의 경쟁의 공생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둘 사이의 경쟁 구도 속에서 대다수의 인간 시민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노동의 능력에 있어서 AI로봇에게 뒤쳐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될 인간 시민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왜 인간이 로봇보다 중요한 존재이며, 비록 노동력이 뒤쳐지더라도 왜 인간은 여전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할 존재인지를 미리 정립해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미리 정립해줄 수 있을 때에만 미래 테크놀로지의 프레카리아트는 최소한 그(녀)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받아야할 대상이라는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²⁵⁾

24) 서스킨드 부자(Richard Susskind and Daniel Susskind)는 첨단 테크놀로지들에 의하여 새롭게 장악되어가는 대표적 전문분야들로서 의료, 교육, 종교, 법률, 언론, 경영컨설팅, 세무와 회계감사, 건축 분야를 예로 들면서 그 구체적인 현황의 심각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Richard Susskind and Daniel Susskind,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위대선 역,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 (서울: 와이즈베리, 2016), 77-140)

25)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계와 인간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미래가 예측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 한다면 AI로봇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하므로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을 정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의 고유성과 존귀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인간 이해가 기본소득의 미래 논의에 적용된다면, ‘인간으로서의’ 테크놀로지의 프레카리아트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의 당위성은 더욱 고취될 수 있다. 성서의 시작인 창조 이야기로부터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유일하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분명히 알려준다.²⁶⁾ 인간의 고유성과 존귀성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논의는 인간의 이성을 그 고유성과 존귀성의 근거로 삼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수용하여 신학적으로 발전시킨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 오면서 기독교 신학의 오랜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담론들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였다.²⁷⁾ 이처럼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탄탄한 기독교 신학의 인간이해의 이론적 뒷받침을 미래 기본소득 수혜자의 자격에 대한 논의에서 해줄 수 있다면, “뜻밖의 일들” 중 하나인 AI로봇의 노동력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는 대다수의 인간 중산층인 테크놀로지의 프레카리아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소득 지급의 이유와 필요성을 개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미리 정립하여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풀어 말하면, 인간의 고유성과 존귀성에 대한 기독교 인간이해의 기본소득 논의에로의 적용은, 기본소득에서 추구하는 소득 분

것은 더욱 난해해질 것이다. 비록 상징적인 사건이긴 하나 초기 형태의 AI로봇인 소피아(Sophia)가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을 볼 때(‘사우디아라비아’, AI로봇 “소피아”에 첫 시민권 부여; 『로봇신문』 2017년 11월 1일자), 미래 기본소득의 논의에서는 지급의 대상인 시민(국민)을 어떻게 규정해야할지가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다.

26) 창세기 1장 26-27절에서 “형상”과 “모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데무트(likeness)와 켈렘(image)은 둘 다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표현해주는 어휘이다(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제68집 (2016), 39-40).

27) 김동환, “테크놀로지 시대의 인간에 대한 신학적 비평,” 110-111.

배의 대상이 오직 인간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 노동에 있어서 로봇이 인간과 경쟁할 존재일 수는 있으나 소득의 분배와 소비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켜주며, 또한 인간 시민들이 로봇에게까지 소외되는 총체적인 전략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고유하게 존중받을 존재로 여겨지게 될 것이고, 결국 무소득과 무소비의 상황으로 내몰린 인간 프레카리아트 모두에게 일정액의 소득과 소비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본소득의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해줄 수 있을 것이다.

3. 기독교의 인간 평등사상과 기본소득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기독교의 인간 평등사상은 기본소득이 제시하는 균등한 소득 분배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²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눅 4:18-19)는 예수의 인간 평등과 해방의 선포, 그리고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갈 3:28)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 등은 기독교의 인간 평등사상의 대표적인 성서적 근거들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인간 평등사상은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 상황에 상관없이(차별 없이)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기본소득의 균등한 분

28)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이야기도 기독교 인간 평등사상의 기초적인 성서적 근거가 된다. 말콤 토리(Malcolm Torry)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근본적인 평등성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형상의 신학적 담론을 기본소득의 당위성과 연결시킨다(Malcolm Torry, *Citizen's Basic Income: A Christian Social Policy*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2016), 37).

배의 원리와 상통한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인간 평등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실제 인간 사회에 적용되고 실현되어 왔다. 외적 행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봄으로써 구원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구원의 대상을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의 모든 인간에게 열어놓았던 종교개혁의 칭의(稱義)론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득 지급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소득 지급의 대상을 그 상황 그대로의 모든 시민에게 열어놓는 기본소득의 균등한 소득 분배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칭의론처럼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믿음이 곧 제사장이 되는 문이고, 따라서 믿음으로 인해 신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²⁹⁾이라고 봄으로써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의 평등주의 사상 또한 기본소득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평등주의 개념과 연결된다.

기독교의 인간 평등사상은 중세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심각한 불평등과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상을 향해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외치는 사상적 원동력이 되어 왔다. 미국을 배경으로 한 흑인해방운동은 그 대표적인 현대적 예이다. 흑인해방운동에 있어서 기독교의 인간 평등사상은 인권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는 흑인해방운동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간파한 인물이었다. 그는 우선적으로 가난이 사라지고 나서야 흑인들이 여러 차별받는 생활환경에 대해 신경을 쓸 수 있고 차별에 대해 제대로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⁰⁾ 그가 계획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캠페인’(Poor

29) 오단이, 서봉균,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와 적용,” 『기독교사회 윤리』 제40집 (2018), 137. 오단리와 서봉균은 만인제사장의 개념과 함께 종교개혁으로 인한 독일어 성경 번역과 직업 소명설도 기본소득의 정신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People's Campaign)은 흑인해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인권적 불평등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이 함께 해결되어야한다는 그의 통찰이 실현된 사회경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 그는 기독교의 인간 평등사상을 경제윤리적 평등사상과 연결시켰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시하였다. 1967년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혼란인가 공동체인가”라는 연설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나는 가장 단순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한다. 가난에 대한 해답은 최근 널리 논의되고 있는 방법, 즉 기본소득에 의해서 가난을 직접 없애는 것이다 ... 1년에 200억 달러면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부정의하고 사악한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데 350억 달러를 쓰는 나라라면, 그리고 사람을 달에 보내는 데 200억 달러를 쓰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구 위에서 자신들의 다리로 서게 하는 데 그만한 돈을 쓸 수 있다.³⁰⁾

반면 고유한 피조물성, 칭의론, 만인사제설, 사회경제적 불의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모든 인간의 동등(평등)성(equality)을 제시하는 기독교의 사상과 소득 분배 대상인 모든 시민의 공평성(equity)을 제안하는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달리, 첨단 과학기술문명은 유전자 조작, 인간 복제, 인공지능, 로봇틱스와 같은 인간 강화기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모두 뛰어난 포스트휴먼을 지향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획일성(uniformity)을 추구한다. 언뜻 보면 모든 인간의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공평하고도 평등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획일화된다면 서로간의 차별이 일어날 이유 자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30) 강남훈, 곽노완,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고양: 박종철출판사, 2014), 19.

31) 강남훈, “왜 기본소득인가?” 『기독교사상』 제690호 (2016), 45.

첨단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획일화된 포스트휴먼의 최종 상태는 성별의 차이도, 피부색의 차이도, 육체적인 노동 능력의 차이도, 지적 능력의 차이도 없는, 모두가 다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모든 차이가 없기에 당연히 모든 차별도 없다. 이러한 상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시된 그 어떤 사회 체제와 이념도 이루어낼 수 없었던 상태이다. 조지 그랜트(George Grant)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현대 과학이다. 현대 과학자들은 비인간 존재들뿐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지배한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이루어낸 과학의 승리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모든 것을 보편화시키고(universalize) 동질화시킬(homogenize) 힘을 부여한다.³²⁾

그러나 현대 과학이 이루어낼 모두가 보편화되고 동질화된 상태의 치명적인 약점은 차별이 없지만 차이 또한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이 상태에서는 차별이 없기에 평등하지만 차이까지도 없도록 동질화되었기에, 결국 모두가 획일화된 인간(포스트휴먼)들로 구성된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구조와 시스템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고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역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낸 과학이다. 따라서 지금도 그러하듯이 미래의 그 시대에도 과학을 이끄는 소수의 인간들이 나머지 인간들을 이끌 것이다. 이때에는 모두가 획일화(다시 말하면 이전의 모든 차별뿐 아니라 개성과 존중의 근거인 차이까지도 모두 사라진 상태로 변화)된 상태이기에 전자가 후자를 이끌고 나가는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쉬워질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우려하는 극소수의 플랫폼 소유주(IT공룡기업)가 바로 그 전자의 예이다. 인류 역사가 항상 그러했듯이 극소수의 리더 그룹이 전체를 이끌 힘을 지니게 될 때 예상되는 사

32) George Grant, *Lament for a Nation*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0), 52.

회 운영 방식은 앞서 설명한 “이제까지 없었던 방식” 즉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최상위층과 중하위층이 첨예하게 구별되는 피라미드식 사회구조이다. 이것이 바로 차별이 없으나 차이도 없는 획일화된 상태의 사회구조의 전망이다. 언뜻 보기에는 가장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구조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차이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가장 불평등한 사회구조, 극소수에 의해 대다수가 지배되는 초양극화 사회구조의 결말이다.

이처럼 불평등하고 초양극화된 미래 사회구조에서 소외될 모든 획일화된 인간(포스트휴먼)들에게 최소한의 공평한 소득의 분배를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의 제안은 더욱 필요하며 더욱 정당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의 공평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주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기독교의 전통 있는 인간 평등주의의 개념과 역사가 사상적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미래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기본소득의 실현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한편 인간의 획일성이 예상되는 미래 첨단과학기술 시대에서는 오히려 그 획일성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실현이 자연스럽게 더욱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인간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이 사라진 획일화된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재적, 사회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 모두가 획일화되었으니 너 나 따질 것 없이 획일화된 인간 모두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공평히 분배해야한다는 당위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이러한 논리 속에서도 모든 획일화된 인간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대우하는 기독교의 평등사상은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제안에 사상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기독교의 관계성과 기본소득

기독교의 관계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모든 시민들을 소득 분배의 네

트위크(관계)로 연결시키려는 기본소득의 원리를 지지해줄 수 있다. 애초부터 기독교는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 기독교에서 관계의 중요성은 신학(신을 연구하는 학문)의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관계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인 신 곧 하나님 스스로의 삼위일체적 관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 창조 이야기의 핵심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학적 논의에 있어서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시작 이전에 이미 하나님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적 관계를 시작하셨다고 말한다.³³⁾ 이처럼 하나님 스스로의 신비스러운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기독교의 관계성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긴밀한 창조 관계뿐 아니라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 곧 자연과의 유기체적 관계로까지 확장된다.³⁴⁾

기독교의 관계성의 확장은 성서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데, 구약(舊約) 곧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과의 옛 언약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구원의 대상을 넘어서 주변 이방 지역에 이르고, 결국 성령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급격히 확장되는(행 1:8) 새로운 언약 곧 신약(新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계 확장의 기점이 되신 예수는 지상에서의 그의 사역을 통하여 기독교 최상의 가치인 사랑의 관계 또한 확장시켜 나갔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전례적인 율법적 사랑의 관계를 원수 사랑이라는 파격적 사랑의 관계로까지 확장시키고(마 5:44) 이를 몸소 보여준 예수의 실천과 그의 가르침

33)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II/2, trans. J. W. Edwards, et. al. (Edinburgh: T. & T. Clark, 1960), 182.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표현하신 “우리의 형상”(창 1:26)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의 삼위일체적 관계를 드러내셨다고 본다(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40-41).

34) 기독교 신학에서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긴밀한 유기체적 관계가 기독교 신학의 첫 장을 장식하는 창조로부터 맺어졌기 때문이다(성서의 유기체적 자연관에 대해서는 김균진,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254-263 참조).

은 기독교의 사랑 관계 확장의 정점이 되었다.

이처럼 성서와 신학 전반에 걸쳐 중시되어온 관계에 대한 기독교의 관심과 관계의 지속적인 확장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방향은 사회경제적으로 낙오되는(관계가 단절되는) 시민이 없도록 일정 소득을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히 분배하려는 기본소득의 관계 형성의 노력과 연결된다.³⁵⁾ 관계성을 통한 기본소득과 기독교의 연결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내용들에서처럼 역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상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첨단 테크놀로지의 힘을 등에 업은 현대 신자유주의는 관계 단절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급변하는 현대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 상호간의 유대 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이미 현대인들의 일상이 되었다. 핸드폰의 보급으로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교실과 직장의 틈새 시간에도, 심지어 약속을 하고 만나서 카페나 식당에 서로 마주 앉아서도 사람보다는 핸드폰과 소통하기를 당연시하는 소위 IT세대는 이제 신세대라 불리기에 어색하게 될 정도로 참신하지도 신기하지도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 되었다. 과학기술의 보급에 따른 인간관계의 급변과 인간 상호 소통의 부재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들 중 하나가 된지 오래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기 6년 전인 “2010년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이 40퍼센트나 떨어졌고(20-30년 전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이러한 공감능력의 저하는 대부분 2000년 이후에 발생했다.”³⁶⁾ 이제 인공지능 기술

35) 물론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사실이 국민들 상호간의 관계 단절의 회복을 일으키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의 수혜자가 됨으로써 기본소득이라는 매개 혹은 장치를 통해 이전에는 없었던 사회적 관계가 국민들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형성을 새롭게 예측하고 지향해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을 탑재한 음성인식 시스템과 챗봇과 같은 친구 대응 로봇 상품들이 대중적으로 시판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실제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 시민들의 양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학적인 분석 이전에 알아야 될 사실은 관계의 단절 양상이 첨단 과학기술이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본 특성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이고도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는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그러한 기본적인 특성은 '진보적 발전사관'이다. 진보적 발전사관은 과학기술이 첨단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회 속에 내재해 있었으나 첨단적으로 발전하는 순간³⁷⁾부터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며 점차 생활 속에서도 체감된다. 예를 들어 무한 경쟁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전을 향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도 타진하지 않은 채 오직 어제보다 진보된 현재 문명, 어제보다 강화된 현재 인간에만 초점을 두겠다는, 현대 포스트휴머니즘의 선봉에 서있는 트랜스휴머니트들의 급진적인 과학의 진보적 발전사관³⁸⁾은, 중국에는 만고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단절시키고 인간 상호 간, 세대 간의 관계성도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AI로봇의 인간 노동시장 잠식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낙오된(관계가 단절된)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인간(포스트휴먼)의 모습은 이러한 결과를 예측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낙오는 사회경

36)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162.

37) 이러한 순간 이후의 과학 발전 속도는 가히 기하급수적(exponential)이라고 표현되며 (Ray Kurzweil, *The Age of Spiritual Machines* (New York: Penguin Books, 1999), 26-27), 이러한 속도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를 특이점(singularity)라고 부른다(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New York: Penguin Books, 2005), 7-22).

38) 이에 대해선 Max More, "The Philosophy of Transhumanism," eds. Max More and Natasha Vita-More, *The Transhumanist Reader* (West Sussex, U.K.: John Wiley & Sons, 2013), 14-15 참조.

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이전의 낙오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들의 낙오는 첨단 테크놀로지가 추진한 급진적 과학의 발전사관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발전사관 자체가 전체 사회의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닥쳐오는 낙오이다. 그렇게 사회의식으로 자리 잡은 급진적 과학의 발전사관은 역시 그렇게 낙오된 테크놀로지의 프레카리아트의 모든 사회적 관계 형성에 개입하여 결국에는 그들을 총체적인 관계 단절의 소외 계층으로 전락시킨다.

이런 점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 관계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계의 중요성을 장구한 성서적 전통과 신학의 기반 위에서 펼쳐온 기독교의 입장은 이처럼 근본적이고 급진적이며 전 사회적인 관계 단절과 그로인한 극단적 소외 계층의 등장을 일으킬 테크놀로지적 신자유주의 문명의 착오를 분별하게끔 해주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사상은 소외되는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소득 배급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줄(즉 관계를 형성시켜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소득임을 피력해줄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의 관계성 논의의 사상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기본소득은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마련이라는 정당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IV. 나가는 말

첨단 테크놀로지를 이끄는 과학자들과 관련 기업가들 중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 이들이 현대 과학기술문명의 혜택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공유되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소득 분배를 제안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점차 관심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3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이 되어온 인터넷

전산망 월드 와이드 웹(WWW)을 개발한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는 WWW에 특허료를 받지 않고 “내가 아니라 세상을 부유하게 하자”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 사용권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그는 최근 “당신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컴퓨터 과학자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에 “기본소득은 기술이 가져온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단순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대답하였다.³⁹⁾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인지과학자 허버트 사이먼(Herbert Alexander Simon)은 소득의 90%가 이전 세대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소득에 대하여 70%의 세율로 일률적 과세를 하고 그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갖자는 과격적인 제안을 2000년에 하였다.⁴⁰⁾

이처럼 21세기 첨단 과학기술시대에 기본소득은 더욱 필요한 경제 개념이며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의 시대적 필요성을 이와 같이 확신하고 그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사상적 근거를 기독교의 네 가지 입장을 통해서 제시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연구되었기에, 본 논문은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들과 특성들을 모두 다루지는 않았으며, 그들 하나하나에 대한 정당성도 다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이자 특성은 보편성(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무조건성(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개별성(개인별로 지급한다)으로 요약된다.⁴¹⁾ 이들 중 기독교의 입장을 통해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지지하고자하는 특수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기본소득의

39) 강남훈, “기본소득,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권리,” 『가톨릭 평론』 제4호 (2016), 47.

40) 위의 책, 49.

41) 강남훈, 박노완,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7.

보편성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공평하게 지급한다는 경제윤리관을 지닌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 곧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성별의 다름이나 지능 혹은 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등하게 임한다는 기독교의 보편성과 일맥상통한다.⁴²⁾ 이처럼 보편성에 기반한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전제로 하여, 본 논문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사상적 지지의 내용을 기독교의 사상 속에서 네 가지만 선별하여 제시해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기독교의 장구한 사상적 유산들과 기본소득의 많은 내용(특성)들은 여전히 서로 연결된 채 남아있다. 이들을 조사하여 서로 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후속 연구들을 통해 지속되어 첨단 과학기술과 신자유주의가 결탁한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기독교 신학의 사상적 지지를 받아 확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42)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의 분배의 보편성(universality)은 전통적인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catholicism)과 근본적으로 연결된다. 반면 범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보편성들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끌며 무한경쟁, 초양극화, 프레카리아트의 양성과 소외,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보편성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짓된 보편성”(false catholicity)으로 볼 수 있다(D. Stephen Long, *Divine Economy: Theology and the Market*, 173).

참고문헌

• 국내서적

- 강남훈, 곽노완.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고양: 박종철출판사, 2014.
- 김균진.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 유기윤, 김정옥, 김지영. 『미래 사회 보고서』. 서울: 라온북, 2017.

• 번역서

- Berger, Roland/김정희 · 조원영 역.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서울: 다산, 2017.
- Chesnais, François/서익진 역. 『자본의 세계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 Rifkin, Jeremy/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서울: 민음사, 1996.
- Ruh, Hans/정미현 역. 『기본소득, 새로운 삶의 형태를 위한 제안』.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8.
- Schwab, Klaus/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현재, 2016.
- Standing, Guy/안효상 역.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주: 창비, 2018.
- Standing, Guy/김태호 역.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고양: 박종철출판사, 2014.
- Susskind, Richard and Daniel Susskind/위대선 역.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 서울: 와이즈베리, 2016.
- Weber, Max/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1995.

• 양서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II/2. trans. J. W. Edwards, et. al. Edinburgh: T. & T. Clark, 1960.
- Ellul, Jacques. *The Technological Society*. John Wilkinson, trans. New York:

Vintage Books, 1964.

Grant, George. *Lament for a Nation*.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0.

Kurzweil, Ray. *The Age of Spiritual Machines*. New York: Penguin Books, 1999.

Kurzweil, Ray. *The Singularity Is Near*. New York: Penguin Books, 2005.

Long, D. Stephen. *Divine Econom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More, Max. "The Philosophy of Transhumanism," eds. Max More and Natasha Vita-More. *The Transhumanist Reader*. West Sussex, U.K.: John Wiley & Sons, 2013.

Torry, Malcolm. *Citizen's Basic Income: A Christian Social Policy*.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2016.

• 논문

강남훈. "기본소득,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권리." 『가톨릭 평론』 제4호 (2016), 44-54.

강남훈. "왜 기본소득인가?" 『기독교사상』 제690호 (2016), 44-55.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제68집 (2016), 35-60.

김동환. "테크놀로지 시대의 인간에 대한 신학적 비평." 『Canon&Culture』 제10권 2호 (2016), 91-125.

양재진.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제25권 1호 (2018), 45-70.

오단이, 서봉균.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와 적용." 『기독교 사회윤리』 제40집 (2018), 121-145.

Kim, Dong Hwan. "A Theological Discourse on the Relation of Technology and Love." 『기독교사회윤리』 제28집 (2014), 81-105.

• 기사

"AI 드림팀" 꾸린 美, 13억명 빅데이터 가진 中 ... "미래"를 건 싸움.' 『한국경제』 2018년 5월 16일자.

‘AI권력이 “초양극화사회” 만든다.’ 『매일경제』 2017년 10월 23일자.

‘사우디아라비아, AI로봇 “소피아”에 첫 시민권 부여.’ 『로봇신문』 2017년 11월 1일자.

‘스위스 국민들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 거부한 이유는?’ 『한국일보』 2016년 6월 6일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AI 선도하는 국가, 미래의 통치자 될 것.” 『조선일보』 2017년 9월 5일자.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14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2일

• 국 문 초 록 •

근래에 점차 부각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이슈는 현재의 국제 정치경제적 양상 속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미래의 국제 정치경제적 양상까지도 예측하면서 보다 거시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를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한 신자유주의 사회로 간주하고, 이러한 사회에서 더욱 심각해져가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과 직업군 상실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시하며, 특별히 기본소득의 주요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기독교의 네 가지 입장을 선별하여 이들을 기본소득과 연결시킴으로써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사상적으로 지지하고자 한다.

주제어: 기본소득, 기독교, 4차 산업혁명, 테크놀로지, 경제윤리, 신자유주의
